

기형도 시에 나타난 ‘고통’의 수사학*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중심으로-

이지원(충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빛의 호출과 존재의 시적 복원 |
| 2. 관찰자의 이중 시선과 고통/희망의
알레고리 | 5. 결론 |
| 3. 신경증의 투사와 고통의 자가증식성 | |

1. 서론

이 글은 기형도(1960~1989) 시에 나타난 ‘고통’의 수사학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기형도가 텍스트 표층에 내세운 ‘고통, 불안, 죽음, 의심, 비명, 경악, 공포 등이 연민에 따른 고통과 결부된다는 점, 이 고통이야말로 집요하게 ‘희망’을 추구하는 특유의 방편이라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다. 이는 기형도 시세계를 규정짓는 비극적 세계관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텍스트에 드리운 어둠의 내막과 궁극적인 지향점을 새롭게 해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형도가 고통의 수사를 운용하는 방식은 여타의 시인과 변별되는, 독특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087030)

시세계를 확보하는 요소이다. 요컨대 고통의 수사적 특성은 기형도의 연민의식을 독특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형도 시의 창작 원리 및 시세계의 특수한 의미를 파악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고통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고통의 근원, 희망의 구체성 및 시세계의 지향점, 시인의 연민의식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기형도 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기형도 시를 주로 그의 원체험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연결하여 해석한 연구¹⁾이다. 이러한 연구 시각은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죽음, 어둠, 절망, 슬픔, 소외, 불안의 의미를 시인의 전기적 사실에서 찾고, 그의 시세계를 비극적 세계관의 전형으로 규정하였다.²⁾ 그러나 기형도 시의 어둠 및 죽음 이미지를 단지 그의 불우함이나 요절과 연동해 읽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한 시인의 죽음은 ‘도저한 부정성’³⁾

1) 정효구, 「죽음이 살다 간 자리」, 『작가세계』 제2호, 1989.

박상찬,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의 상상력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정화, 「기형도 시의 죽음의 동력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보규, 「기형도 시의 죽음 의식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장준영, 「李賀와 기형도, 그 죽음의 미학」, 『외국문학연구』 제2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

오윤정,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과 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조성빈, 「기형도 시의 타나토스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홍진,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시간 양상과 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라기주, 「기형도 시에 나타난 트라우마 양상-‘위험한 가계·1969’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오수연, 「유년 체험 시에 나타난 기억 서사의 형상화」, 『어문연구』 제99집, 어문연구학회, 2019.

2) 이러한 결과는 『입 속의 검은 잎』에서의 김현의 해설에도 한 원인이 있다. 김현은 기형도 시에 대한 최초의 비평가로서 가난과 이별의 상처 체험이 기형도의 시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 시세계를 “도저한 부정적 세계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규정하였다. 기형도 시세계를 여는 키워드가 여전히 죽음, 절망, 부정으로 승인되는 현실은 김현의 비평이 후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시세계를 비극으로 완결 짓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기형도가 끊임없이 시 안에 끌어들이는 어둠이나 죽음에 표피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의 시세계를 비극적 세계관으로 단순화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기형도는 왜 유독 죽음, 어둠, 절망 등에 집착하는가? 왜 희망을 노래하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절망을 환기하는가? 죽음, 어둠, 절망 등은 은폐된 '다른 무엇'을 드러내는 기호가 아닐까? 이 부정적 시어들은 기형도 시에서 어떤 내적 논리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기형도 시세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문학외적 관심에서 벗어나 내적 분석을 통해 기형도 시세계에 접근한 연구⁴⁾이다. 전기적 사실과 거리를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시 자체에 집중한 논의들은 앞서 언급한 연구방법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연구들 역시 황폐한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부정, 그리고 죽음이 기형도 시세계를 지탱하는 토대라고 결론지음으로써 기존 논의의 관점으로 환원되는

- 3) 김 현, 「영원히 닫힌 빈 방의 체험-한 젊은 시인을 위한 진혼가」,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 4) 임세진, 「기형도 시에 나타난 소의 이미지 연구」, 『겨레어문학』 제47집, 겨레어문학회, 2011.
 박종덕,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공포의 근원과 형상화 양상」, 『어문연구』 제82집, 어문연구학회, 2014.
 송지선,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bed town)의 로컬리티 연구」,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학회, 2015.
 국원호, 「기형도 시의 비재현적 이미지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원보람, 「기형도 시의 공간 연구」,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김수현, 「기형도 시에 나타난 내재적 유토피아 연구 -이콘의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강연호, 「기형도 시에 나타난 경계(境界)의 세계 인식」, 『한국문예창작』 제17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18.
 한병인, 「기형도 시의 플롯 구조와 리듬의 연관성 연구」, 『비평문학』 제71집, 한국비평문학회, 2019.

한계를 노정한다.

이러한 가운데 기형도 시에 드리운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재발견하려는 연구⁵⁾는 기형도 시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형도 시가 추구한 희망이 과연 무엇인지, 절망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지, 어떤 논리로 추동되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것을 밝힐 수 있을 때야야 희망이 기형도 시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제대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형도 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형도가 반복해 드러내는 죽음, 공포, 절망, 어둠, 슬픔, 소외, 불안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형도 시를 관류하는 근원적 감정을 짚어내고, 그 내적 논리를 깊이 있게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연민’은 다른 시인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런데 기형도의 연민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감정을 넘어서서 죽음, 절망, 슬픔, 소외, 불안, 공포 등의 존재론적 고통을 야기하는 근원적인 감정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누스바움⁶⁾에 따르면, “연민은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불행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초래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⁷⁾ 연민의 감정이 고통과 연결되는 이유는, 무고한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순간 나 역시 저 고통받는 사람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 즉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기형도는 왜 병든 가족, 겁탈당한 여공, 공장의 아이들, 도시의 노동자,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은 물론, “중풍병자”로 태어난 우리(인간존재)를 시 안에 내세우는가? 왜 이들의 공포와 절망으로 희망을

5) 김행숙, 「기형도가 희망을 말하는 방법」, 『한국문학연구』 제5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6) 마사 누스바움(1947-)은 미국의 철학자이다. 감정의 문제를 철학, 문학, 신경과학, 역사 영역에 접목한 연구로 학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는 서구철학의 이성 중심을 해체하고 감정의 문제를 학문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7)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2 연민』,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7, 552면.

불러들이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방법은 '고통'에 방점을 찍고, 그 고통의 시적 기능을 연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거리의 상상력은 고통이었고 나는 그 고통을 사랑하였다.”(『입속의 검은 잎』 「시작 메모」 1988년 11월)는 기형도 시가 고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거리는 인간존재의 삶을 생생히 들여다보는 장소이다. 그런데 거리의 상상력이 곧 고통이었다는 고백은, 기형도의 시적 관심이 인간존재에 대한 연민의 고통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고통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 고통 속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시적 책임을 보여준다. 가령 “더욱 큰 공포와 마주 서야 하는 초병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제대병」)에서 엿보이는 일종의 당위는, 기형도가 고통의 극대화 방식으로써 희망을 추구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형도 시에서 고통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누스바움의 연민 논리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실제로 고통은 동기를 부여하는 연민의 역할에서 핵심적인 것”⁸⁾이라는 말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을 때의 이 고통이야말로 연민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부추기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고통스럽다는 느낌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이유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본고는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고통의 특수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원용한다. ‘분별 있는 관찰자, 연민의 3가지 인지적 요소, 고통과 실천 동기, 시적 상상력의 빛’ 등의 이론은 기형도 시가 갖는 연민의 수사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기존 연구가 기형도 시의 비극적 측면을 조명했다면, 본고는 고통의 수사가 기형도 시세계를 독특하게 구축하는 요소라는 점, 고통을 지렛대 삼아 훼손된 존재를 복원하는 것이 기형도의 희망이면서 시세계의 지향점이라는 점을 밝히

8) 위의 책. 마사 누스바움은 고통이 연민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동기라고 말한다. 고통당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고통은 그 사람을 연민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삶을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는 데 목표를 둔다. 이로써 기형도 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형상화하는 데 바쳐져 있다.”, “죽음을 삶으로 순환하지 못하는 비극적 세계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⁹⁾라고 결론지은 기존 연구를 극복하여 기형도 시세계를 온전하게 규명할 것이다.

2. 관찰자의 이중 시선과 고통/희망의 알레고리

기형도 시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집요하게 관찰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는 기형도가 누구보다 그 불행의 내막을 세세히 들여다보고자 했다는 근거이며, 존재의 고통을 제대로 판단하고자 했다는 의미이다. 연민을 갖춘 시인, 즉 ‘분별 있는 관찰자’¹⁰⁾로서 기형도는 인간의 장소인 ‘거리’¹¹⁾로 나서서 타인들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시인은 그들의 고통 앞에 멈춰 섰으며,¹²⁾ 기꺼이 그 고통에

9) 오윤정, 앞의 논문.

10) 누스바움은 “분별 있는 관찰자는 감정이입을 넘어서 자신만의 관찰자적 관점에서 그들의 고통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궁리출판사, 2013, 193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즉 연민은 가치 평가에서 출발하므로 엄정한 판단을 위해 누스바움이 요구하는 것은 ‘분별 있는 관찰자’이다. 연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통의 내막을 세세히 살피고 또 정확히 판단하려는 자세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시인이 분별 있는 관찰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문학적 상상력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것이다.

11) 시인의 관찰은 주로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음성은 이제 누구의 것일까/이 상점은 어쩌다 간판을 바꾸었을까/도무지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우산을 쓴 친구들은 나에게 지적한다”(「가는 비 온다」)는 시인의 관찰자적 경향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예이다. 삶과 고통의 내막을 세세히 관찰하는 시적 태도는 기형도 시의 특성이다. 기형도가 존재론적 고통을 시 안에 형상화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가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관찰한 데 있다.

12) “어떤 경우건 분별 있는 관찰자는 타인의 고통이라는 경험 앞에 멈춰 서게 된다. 그리고 관찰자적 시각에서 이 고통이 그 대상에게 적절하며, 합리적인 사람이 그러한

뛰어들었다. “연민은 특수한 유형의 고통이라는 것”¹³⁾을 고려한다면, 기형도의 고통은 감정이입을 넘어서서 타인의 고통을 내면화하는 연민의 특성을 갖는다.

그는 분명 그 누구보다 인생의 고통을 잘 이해하게 되겠지만
(중략)
휴일의 행인들은 하나같이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다
그러면 종종 묻고 싶어진다, 내 무시무시한 생애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거주장스러운 마음을 망치기 위해
가없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흙탕물 주위를 나는 기웃거렸던가!
「흔해빠진 독서」 부분¹⁴⁾

시인은 “누구보다 인생의 고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다. “가없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흙탕물 주위를 나는 기웃거렸던가!”에서 ‘기웃거리’는 기형도가 세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또 정확히 판단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먼저 기형도의 연민의 시선은 많은 타인들에서 일관되게 불행을 읽어낸다. 또한 그가 기웃거리는 흙탕물은 언제라도 그에게 될 위협성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훼손의 시대를 내포한다. 따라서 기형도가 많은 사람들과 흙탕물을 관찰한 끝에 내린 판단은 “행인들은 하나같이 곧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다”에서 보듯이 훼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존재 모두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누스바움이 제시한 ‘연민의 3가지 인지적 요소’¹⁵⁾ 중 고통의 크기와 관련된

상황에서 충분히 느낄 만한 고통, 분노, 공포인지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겪은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결정적인 단계이다. 이것 없이는 그 어떤 관찰자적 평가도 핵심을 빗나갈 것이기 때문이다.”(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195-196면).

13)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2 연민』, 594면.

14) 기형도, 『기형도 전집』,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문학과지성사, 2017, 57면. 이하 시텍스트를 인용할 시에도 이 책에 따르며, 인용의 마지막에 제목만 적기로 한다.

15) 위의 책, 587면. 연민의 3가지 인지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고통의 크기에 대한 판단: 그 사람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믿음 또는 평가.

다.¹⁶⁾ 기형도는 자신이 관찰한 세계가 “무시무시한”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시인은 몹시 무서운 고통을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망치기 위해” 고통받는 인간존재와 훼손의 시대를 기웃거리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시인은 일상의 안온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존재론적 고통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기형도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행인들 모두를 고통스러운 존재로 뭉뚱그리고, 무시무시한 생애를 매력적인 것으로 연출하고, 스스로 망치기를 피하고, 훼손의 시대를 기웃거리는 것은 그가 지나치게 고통에 집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시인이 역설적으로 고통으로부터의 탈주를 절실히 꿈꿨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기형도가 고통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삶을 오로지 연민의 고통으로 반추하기 때문이며, 연민의 고통만이 희망을 흔들여 눈뜨게 하는 조건으로 그의 내면에 입력됐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통은 보다 나은 세계로 옮겨 가기를 욕망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동기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형도가 어둠에 펜을 담그고 연민으로 써 내려간 절망의 시어들은 반어적으로 희망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기형도가 노래하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희망을 불러들이는 힘이며, 희망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통로인 것이다. 이렇게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고통/희망의 상관관계는 기형도 내면에 잠재하는 일종의 신념을 엿보인다. 끔찍한 고통 속에 던져진 자만이 더욱 간절히 희망을 탐색할 수 있다는 신념은, 기형도가 시 안에서 관찰자의 이중 시선을 견지하는 요인이다.

② 그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그가 이 고통을 자초한 것이 아니다.

③ 행복주의적 판단: 이 사람 또는 생명체는 내가 설정한 목표와 기획의 중요한 요소, 목적으로서 그에게 좋은 일을 촉진해야 한다.

16) 고통의 크기에 대한 판단과 행복주의적 판단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 고통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관찰자 관점에 의존한다 할 때, 이 관찰자가 고통당하는 사람의 운명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를 위해 좋은 일을 촉구하려는 판단 역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위의 책, 590면).

기형도 시에서 관찰자의 이중 시선은 고통 뒤에 희망을 기둥 세움으로써 고통/희망의 짝패로 구조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기존 연구는 기형도 시의 비극적 측면을 논하기 위해 희망을 절망으로 덮어버리거나, 희망을 논하기 위해 절망을 견어내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기형도는 “희망도 절망도 같은 줄기가 띄우는 작은 이파리일 뿐, 그리하여 나는 살아가리라”(「식목제植木祭」)라며 동시에 내포된 절망/희망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연민의 줄기가 띄우는 고통/희망의 짝패는 대표적으로 ‘안개’, ‘입’으로 형상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형도 특유의 이중 시선이 만들어낸 이중적 알레고리이다.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곳에
 간헐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중략)
 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검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겨울엔
 방죽 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중략)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안개」 부분

기형도 시에서 ‘안개’는 표층적 알레고리로서 ‘고통’을 나타낸다. 우선 안개는 여직공이 겁탈당하는 현실, 취객이 얼어 죽는 현실을 가리는 ‘장막’¹⁷⁾이다. 자본주의의 폭력에 훼손된 존재를 은폐하는 기호인 것이다. “한 사대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역시 안개의 파괴적인 속성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한다. 특히, 기형도 시에서 훼손의 코드는 여공이 겁탈당하거나 취객이 얼어 죽는 사건 등으로 드러난다. 여공과 취객의 무력함은 “그녀의 입이 막히자/그것으로 끝이었다”, “그것이/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로 표현된다. 기형도는 장막 안에서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고 그 폭력의 실상이 은폐된다는 사실을 연민의 고통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안개(장막)는 주로 취약 계층의 노예화를 교묘하게 은폐하고 합리화한다. 희고 아름다운 얼굴의 여공, 무력무력 자라 공장으로 가는 아이들은 산업화의 폭력성을 반어적으로 제시한 대상이다. 빛을 못 봐 창백한 안색의 여공, 자라서 갈 곳이 공장밖에 없는 아이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산업화의 도구로 전락해 있다. 기형도는 희망이 차단된 현실을 반어법으로 연출함으로써 더욱더 희망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한다. 길들여진 “가축”, 즉 노예화된 존재를 이름답고 순수한 가치로 왜곡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그들의 고통이 부당하고 심각하다는 판단을 표출하는 것이다.¹⁹⁾ 이는 기형도의 연민의 시선이 취약 계층의 고통에 머물러

17) 누스바움은 목소리들을 침묵 속에 가두는 것, 민주적 심판의 태양을 가리는 것, 바로 이것을 ‘장막’이라고 표현했다. 문학적 상상력이 이 장막을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공감에 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 능력이 없다면 “끝없는 노예 세대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자유를 향한 희망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252면).

18) “연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기본적 지원을 모든 사람에게 확보해 주려는 동기를 마련해준다.”(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2 연민』, 747면) 그래서 “연민은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윤리적 성취를 포함한다.”(위의 책, 613면).

19) 이것은 누스바움의 연민의 3가지 인지적 요소 중, 그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판단,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있다는 근거이다.

이처럼 표층적 알레고리로서 고통을 나타내는 안개는, 여공의 입을 막아 침묵 속에 가둠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빼앗고, 빛을 가림으로써 바른 판단을 차단하는 장막으로 장치된다. 이로써 폭력에 짓밟힌 여공, 한갓 쓰레기더미로 처리되는 취객, 저항해볼 힘도 없이 노동을 착취당하는 아이들의 운명은 안개에 갇힌 채 불투명하게 은폐되고 있다.

그런데 시적 문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안개는 심층적 알레고리로서 '희망'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먼저 “그러나 그것은/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인은 타인의 불행을 안개와 무관한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기형도가 누군가의 불행을 굳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규정하는 진의는, 존재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는 방식으로 고통의 부당함을 부각하려는 데 있다. 이로써 그가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도 부당하게 불행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안개의 탓은 아니다”는 오히려 ‘안개의 탓’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시인은 안개를 옹호하는 듯한 시적 제스처로 안개의 폭력성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다. ‘탓(혐의)’을 벗은 안개’는 부당하게 고통받는 존재들로 하여금 ‘장막’을 각성하게 함으로써, 희망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이용된다. 이런 점에서 안개는 저항과 해방의 희망을 내포하는 알레고리이기도 하다.

한편, “그러나 그것은/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는 기형도 시의 반어적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반어는 연민에 근거한 화법, 즉 고통을 이용하여 희망을 유도하기 위해 기형도가 즐겨 사용하는 독특한 시적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고통(표층적 알레고리)/희망(심층적 알레고리)의 이중 구조는 기형도 시가 패러독스의 미학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갈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에서도 안개는 심층적 알레고리로서 궁극적으로 희망의 의미를 포괄한다. ‘경악할 때까지’라는 조건부는 ‘존재를 가두는 안개의 정체를 각성할 때까지’로 대체할 수 있다. 경악은 자신이 장막에 감금돼 있다는 인식에 의해 촉발하는 고통이다.

시인은 경악 자체는 심각한 고통이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 희망을 불러낼 수는 있으리라 믿는다. 그가 ‘경악할 때까지’라는 조건을 건다는 점은 경악 이후에 고통의 상황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개는 ‘경악할 만하다’는 가치판단과 연결됨으로써 해방을 촉구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신을 감금하는 안개에 무감각하다면 그 존재는 폐허에 갇힌 가축(노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개는 경악을 일으키는 조건이지만, 문맥적 차원에서 보면 그 고통을 토대로 존재의 해방을 유도하는 매개라는 점에서 희망의 알레고리로도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형도의 이중 시선은 고통을 통해 희망을 지향하는 토대이자, 고통/희망이라는 이중적 알레고리를 창조하는 요소이다. 이 시에서 안개는 크게는 ‘고통(심층적 알레고리)/희망(표층적 알레고리)’을, 더 세세하게는 ‘은폐/각성, 폭압/해방, 훼손/존엄 회복’ 등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중적 알레고리이다.

한편 기형도 시에서 ‘입’은 혀, 이빨, 이, 입술, 윗, 침묵 등으로 변주되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중적 알레고리이다. 입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나 존엄을 의미하는데, 이 시에서는 억압이나 훼손을 드러내는 데 쓰인다. 여직공의 ‘막힌 입’은 표층적 알레고리로서 겁탈이라는 훼손의 고통을 나타낸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보면, 입은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이 “힘약한 욕설을 해대”는 발설의 도구라는 점에서, 훼손당한 자들이 폭압에 저항하는 방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기형도 시에서 ‘막힌 입/발설하는 입’은 안개와 함께 고통/희망의 이중적 알레고리이다.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먼 지방에 있었다
 먼지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열면 벌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해 여름 땅바닥은 책과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접힌 옷가지를 펼칠 때마다 흰 연기가 튀어나왔다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썼다
 (중략)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어린 아들은
 앞들의 포위를 건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해 여름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놀란 자의 침묵 앞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넘쳤다
 (중략)

내 입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입 속의 검은 잎」 부분

광주민주화운동을 연상케 하는 이 시에서도 안개는 '고통'이라는 표층적 알레고리로 기능한다. “문을 열면 별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다”에서 안개는 장막을 가리키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최루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안개와 최루탄은 시적 맥락에서 외면적 유사성 및 의미적 유사성을 갖는다. 외면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띤다. 의미적으로는 무고한 자들의 저항을 폭력으로 무력화함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띤다.

그런데 기형도는 안개를 '희망'이라는 심층적 알레고리로 확장하고 있다. 안개의 시적 문맥을 보면, “흰 연기가 튀어나왔다/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썼다”에서 ‘흰 연기’는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는 것을 각성하는 동기이며, 발설하는 ‘입’을 촉구하는 계기로 나타난다. ‘침묵=하인’은 ‘억압=노예’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그가 억압된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닌가는 침묵하느냐 발설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안개는 거대 권력에 통제당하는 자아(하인-노예)를 흔들어 깨우는 매개라는 점에서 해방을 환기한다. 따라서 이 시에서 안개는 시대적 폭력을 은폐하는 동시에 민주적 심판을 유도하는 장치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안개는 1980년대의 고통/희망의 알레고리, 즉 시대적 ‘장막(표층적 알레고리)/해방(심층적 알레고리)’을 드러내는 이중적 알레고리이다.

‘입’의 변주로 등장하는 ‘침묵’, ‘굳어가는 혀’, “내 입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은 고통을 의미하는 표층적 알레고리로 나타난다. 이는 군부독재하에

억압되고 노예화된 존재의 고통을 드러낸다. 반면, 해방을 의미하는 심층적 알레고리로서 ‘망자의 혀’는 죽은 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흘러넘”침으로써 해방을 발설해야 함을 촉구한다. ‘입’은 고통(표층적 알레고리)/희망(심층적 알레고리)을 형상화하는데, ‘지배/저항, 은폐/각성, 노예/해방, 훼손/존엄’으로 의미화된다.

이처럼 기형도 시에서 ‘고통/희망’의 알레고리는 고통에서 희망을 탐색한 시인의 이중 시선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형도의 이중 시선은 표층적으로는 고통의 알레고리를 내세우지만 심층적으로는 희망의 알레고리를 장치한다는 점이다. 기형도가 추구한 희망은 “희망이란 미래의 행복이 철저하게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함축한다.”²⁰⁾는 누스바움의 주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누스바움은 연민의 시인이란 어둠에 잉크를 묻혀 시대의 어둠을 썬내려가는 자²¹⁾이며, 배제된 자들의 “오랫동안 말이 없던 목소리들”이 장막을 벗고 빛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자다.²²⁾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나 존엄한 가치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연민의 시인이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형도가 안개, 막힌 입, 굳은 혀, 흘러넘치는 혀 등을 시 안에 자주 끌어들이는 것은 존재를 훼손하는 부조리한 시대를 증언했다는 의미이며, 목소리를 빼앗긴 채 장막에 갇힌 자들을 각성하고 해방하고자 했다는 뜻이다.

기형도 시가 어둠에 침잠한 채 현실 비판에 무관심했다는 평가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고통을 단선적으로 이해한 데 원인이 있다.²³⁾ 절망과 죽음이 기형도 시 표층을 어렵게 채색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의 시가 매혹적인 까닭은

20)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129면.

21) 위의 책, 261면.

22) 위의 책, 249면.

23) 기형도는 1970-1980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 군부독재의 정치적·사회적 폭압을 시 안에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연민의 논리로 형상화한다. 혹자는 기형도 시가 1980년대의 시적 요구인 참여시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기형도 시 특유의 연민의 기능과 의미를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민의 고통 뒤에 희망의 빛을 겹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개”와 “입”으로 대표되는 고통/희망의 알레고리는 기형도 특유의 저항 방식으로서, 시세계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²⁴⁾

3. 신경증의 투사와 고통의 자기증식

기형도는 불완전한 인간존재의 근원적 고통을 끊임없이 시 안에 투사하였다. 시인은 저 고통받는 사람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존재의 근원적 고통을 이해하고자 했다. 기형도 시에서 존재론적 고통은 특히 불안증, 강박증, 망상 반응, 공포증 등의 신경증²⁵⁾으로 투사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나도 언제나 똑같은 운명의 돌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연민이 공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은 이 때문이”²⁶⁾라는 말은, 기형도 시에 자주 나타나는 신경증적 양상을 존재의 근원적 고통에 대한 시인의 예민한 정신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신경증적 증상이 존재론적 고통을 자기증식하는 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기형도는 왜 신경증으로 고통을 증폭시키는가? 신경증은 ‘정신’과 ‘신체’ 모두에 증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고통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감각화한다. 또한 병적 증상이라는 점에서 존재의 심각한 고통을 형상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형도는 불완전한 인간존재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면, 역설적으로 오직 극심한 고통을 지렛대로

24) 이 외에도 「가수는 입을 다무네」, 「늙은 사람」, 「정거장에서의 충고」, 「그날」, 「나리 나리 개나리」 등에서 고통/희망의 알레고리가 나타난다.

25) 신경증은 심리적 원인에 의하여 정신 증상이나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병증으로서 불안 신경증·히스테리·강박 신경증·공포 신경증·망상 반응 등으로 나타난다.

26)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2 연민』, 578면.

희망의 불을 켤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즉, 시인이 고통을 극대화하는 시적 태도에는, 그 고통이 끔찍한 것일수록 보다 절실히 희망을 호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이 잠재돼 있다.²⁷⁾

이처럼 극한의 고통에서 희망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는, 기형도가 텍스트 안에 신경증을 투사하여 고통을 증폭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고통이 연민의 실천 윤리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고통이야말로 연민의 상황을 벗어나도록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동기²⁸⁾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형도가 왜 그토록 고통에 집착했는가, 왜 신경증을 시적 방편으로 고통을 심화시켰는가를 잘 설명해준다.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누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 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 안 가득 풀풀 수습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바람의 집-겨울 版畫1」 전문

이 시에서 ‘나’는 신경증적 증상인 망상 반응, 강박증, 공포증을 앓고 있다. 시인은 공포의 근원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진 않는다. 다만,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는 울음소리가 외부가 아닌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자기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울음소리는 불완전한 인간존재의 근원적 고통을 강박 신경증을 통해 강조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어머니 무서워요

27) “어떠한 슬픔도 그 끝에 이르면 짓궂은 변증의 쾌락으로 치우침을 네가 아느냐.”(「포도밭 묘지2」)는 기형도 정신에 프로그래밍된 고통/희망의 상관관계를 뚜렷이 말해주는 대목이다.

28) 위의 책, 594면.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는 시인 자신이 인간존재의 숙명적 고통을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내는데, “어머니조차” 무섭게 느껴지는 병적 상황은 그가 겪는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현재의 무서움을 미래의 그리움으로 치환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울” 것을 자신에게 주문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형도가 더 큰 울음소리로 고통을 극대화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내 “속에서” 더 큰 소리로 울음으로써, 다시 말해 존재 내부에서 고통을 증폭시킴으로써 존재론적 불안을 그리워할 만한 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공포증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때 공포증은 존재론적 고통을 증폭시키는 독특한 장치로서, 시적 긴장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기형도 시에서 ‘동지’, ‘자정’은 연민의 인지적 요소 중 고통의 크기와 연결된다. 이 시간적 배경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지만, 역설적으로 희망의 빛이 움트는 순간을 내포하기도 한다. 동지에는 음기가 극성한 가운데 양기가 새로 생겨나며 밤이 가장 길다. 자정은 깊은 밤인 동시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때이다. ‘극성한 음기→양기’, ‘가장 깊은 어둠→빛’, ‘가장 긴 밤→새벽’은 ‘가장 극한의 고통→희망의 시작’을 암시한다. 기형도는 고통의 극한에 다다라야만 비로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고통 자체는 고통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탈주하도록 유도하는 직접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형도가 시 안에서 극한의 고통을 끊임없이 연출하는 이유이자, 독자가 기형도 시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고통은 희망으로 옮겨 가는 가장 적극적인 시적 방법인 것이다.

우리는
 신경을 잃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씌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라.

「가을 무덤-제망매가」 부분

기형도 시에서 “풍병”(『위험한 가계家系 · 1969』)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불완전한 인간존재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중풍은 입과 눈을 한쪽으로 틀어지게 하거나 온몸의 절반을 마비시키고 언어 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존재를 훼손하는 병이다. 그런데 중풍 자체는 유전되는 질환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에서 기형도가 스스로를 중풍병자로 자처하는 태도는 일종의 망상 반응, 강박 신경증적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중풍이라는 병을 유전 형식으로 상속받는다라는 점은 기형도가 ‘나도’ 아버지처럼 될 가능성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가 인간 자체를 본디 훼손된 존재로 운명 짓고 있다는 근거이다. 더욱이 어머니는 “너는 아버지가 끊어뜨린 한 가닥 실정맥이야.”(『폭풍의 언덕』)라며, 그가 겪는 고통의 내력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 아버지의 고통이 상속되는 운명, 이로써 기형도 개인의 고통은 불완전한 인간존재가 근원적으로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우리는/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났다는 강박적 표현은, 기형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존재의 숙명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중풍병자(훼손된 아버지) = 훼손된 우리 = 훼손된 인간존재’에는 불완전한 인간존재에 대한 연민의 고통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기형도 시에서 연민의 고통은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판단,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라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기형도가 굳이 중풍병자를 자처하는 이유도, 훼손의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고통을 수용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기형도가 인간의 취약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고통에 익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자처한 중풍병자는 중풍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는, 즉 불구자로 낙인²⁹⁾찍힌 자로서 “신경을 앓는”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기에 공포의 근원이기도 하다. “전신에 땀방울

29)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7, 318면.

을 비늘로 달고”는 공포에 사로잡힌 자아의 망상 반응과 강박증을 보여준다. 전신에 달린 땀방울은 온몸에 분포된 신경 세포의 돌기마다 맺힌 무수한 통증들을 시각화하는데, 이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미적 긴장을 일으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기형도는 인간 차원의 “땀방울”을 동물 차원의 “비늘”로 대체함으로써 자기정체성을 취약한 존재로 돌려놓는다. 땀방울이 인간존재에 따라붙는 근원적 고통을 의미한다면, 온몸을 뒤덮는 비늘은 취약한 자아에 촘촘히 자가증식하는 고통을 독특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쉴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는 침묵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는 것과, 어두운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려 오랜 시간 몸부림쳤다는 것을 나타낸다. 쉼 목소리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포기되지 않는 희망을 강하게 내포한다. 또한 어둠을 극복하여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되고 있다.³⁰⁾ 기형도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무기 삼아 가혹한 운명을 넘어서길 희망한 것이다.

눈이 그친다.

인천집 흐린 유리창에 불이 꺼지고

낮은 지붕들 사이에 끼인

하늘은 딱딱한 널빤지처럼 떠 있다.

가늠할 수 없는 넓이로 바람은

손쉽게 더러운 담벼락을 포장하고

싸락눈들은 비명을 지르며 튀어 오른다.

흙집투성이 흑백의 자막 속을

한 사내가 천천히 걷고 있다.

무슨 농구農具처럼 굵은 손가락들, 어디선가 빠뜨려버린

몇 병의 취기를 기억해내며 사내는

문 닫힌 상회 앞에서 마지막 담배와 헤어진다.

30) 누스바움은 시인의 외침이 침묵을 깨고 장막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과 시적 상상력의 빛이 존엄에 대한 훼손을 발견해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250면).

빈 골목은 펼쳐진 담요처럼 쓸쓸한데
 싸락눈 낮은 축광 위로 길게 흔들리는
 기침 소리 몇. 검게 얼어붙은 간판 밑을 지나
 휘적휘적 사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밤, 빛과 어둠을 분간할 수 없는
 팡팡 빛나는, 이 무서운 백야
 밟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눈길을 만들며
 군용 파카 속에서 칭얼거리는 어린 아들을 업은 채
 「백야」 전문

이 시에서 기형도는 어린 아들을 업은 채 겨울밤의 차가운 눈길을 걷고 있는 사내를 연민으로 바라본다. 사내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사내의 고통은 그에 감정이입한 시인의 과민한 정신 반응을 통해 감지된다. 기형도는 사내에 존재론적 고통을 투사하는데, 그 고통은 불안 신경증, 강박 신경증, 공포 신경증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난다. 이는 사내의 고통이 시인의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며, 시인이 신경증을 통해 존재론적 고통의 심각성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안, 강박, 공포는 단지 사내를 수식하는 데 쓰인다기보다는, 존재론적 고통을 증폭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지붕들 사이에 끼인 딱딱한 널빤지로 표현되는 하늘은 시인의 폐쇄 공포증이 투사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폐쇄 공포증, 즉 꼭 닫힌 곳에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강박 신경증은 바람조차도 담벼락을 포장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차단된 세계란 폐허에 불과하다는 의식이다. 이때 폐쇄 공포증은 폐허에 감금된 자아의 고통을 심화시켜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또한 “비명을 지르며 튀어 오”르는 싸락눈들은 망상 반응, 강박 신경증, 공포 신경증의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비명은 몹시 두려움을 느낄 때 지르는 외마디 소리이다. 그런데 지면에 떨어졌다 튕겨 올라가는 싸락눈에

비명을 대입하는 것은, 시인이 자신을 세계에 던져진 존재, 추락의 공포에 사로잡힌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간존재에 대한 연민의 고통은 그저 자연현상일 뿐인 싸락눈을 추락하는 자아의 비명으로 비약시키는 원천이다.

특히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거느리는 “무슨 농구農具처럼 굵은 손가락들”은 강박 신경증이 신체의 이상 증세로 나타나는 대표적 예이다. 시인은 사내의 농구처럼 굵은 손가락들을 통해 세계로부터 유리되어 소통이 불가능한 자아, 또는 세상과의 불협화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와 악수할 수 없는 손, 즉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훼손된 존재의 고통을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에 힘입어 더욱 극대화하여 제시한다. 이처럼 기형도 시에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주로 신경증을 드러내는 데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연민에 근거한 존재론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연민의 고통이 창조한 독특한 시적 영역이라 할 만하다.

“회적회적 사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불투명한 세계에 던져진 인간존재의 불안을 암시한다. 불투명한 세계는 ‘빛과 어둠을 분간할 수 없는 밤’으로 나타나며, 시인의 내부에서 커져가는 공포 신경증과 강박 신경증은 “짹짹 빛나는, 이 무서운 백야”로 표출된다.

기형도는 사내가 짊어진 고통을 공감하고 인간존재에 수반하는 고통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사내를 묘사하는 가운데 발현되는 불안증, 강박증, 공포증 등은 존재론적 고통에 대한 시인의 예민한 시적 반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시인 자신이 겪은 황폐한 현실에 대한 비극적 반응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신경증을 시적 방편으로 고통을 극대화하는 의도는 기형도가 그만큼 절실히 희망을 유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기형도가 고통의 자가증식을 꾀하는 이유는, 가장 심각한 고통을 통과할 때라야 비로소 희망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연민에 근거한 고통은 훼손된 자아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중요한 매개인 것이다.

신경증이 유도하는 고통의 자가증식성, 즉 일종의 실험적 고통으로 희망을

불러들이는 방식은 기형도 시의 중요한 특질이다. 고통을 극대화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꾀하는 이 역설은 기형도 시세계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³¹⁾

4. 빛의 호출과 존재의 시적 복원

기형도의 시적 과제는 고통당하는 가련한 존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빛의 상상력은 암흑한 세계로부터 취약한 인간존재를 건져 올리는 방법, 즉 희망을 쏘아 올리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기형도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텍스트에 빛을 불러들인다. 특히 강렬하게 튀어 오르는 빛은 기형도가 희망을 호출하는 시적 방편이다. 튀어 오르는 빛, 섬광, 솟아오르고 타오르는 빛 등, '비상하는 빛'은 기형도 시에서 훼손된 존재를 존엄한 존재로 복원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점은 연민의 인지적 요소 중 행복주의적 판단³²⁾에서 발현된 것이다. 훼손된 존재를 복원하려는 시적 과제는 스스로 고통이 되어 고통받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연민의 실천 윤리와 맞물려 나타난다.

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아버지, 여전히 말씀도 못 하시고 굳은

31) 이 외에도 기형도 시에는 신경증의 양상을 통해 존재론적 고통을 심화하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조치원」, 「노을」, 「입 속의 검은 잎」, 「레코오드판에서 바늘이 튀어 오르듯이」, 「오후 4시의 희망」, 「추억에 대한 경멸」, 「식목제植木祭」, 「빈집」, 「위험한 가계家系 · 1969」, 「비가2-붉은달」, 「폭풍의 언덕」, 「나의 플래쉬 속으로 들어온 개」, 「비가-좁은 문」, 「정거장에서의 충고」.

32) 행복주의적 판단은 고통받는 자에게 좋은 일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 기초한다. 기형도가 상처입은 사내에게 “크고 검은 한 마리 새”(「조치원」)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 역시, 부당한 현실에서 그를 구출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점에서 연민 윤리의 시적 실천이라 볼 수 있다.

혀. 어느만큼 눈이 녹아야 흐르실는지. 털실 뭉치를 감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오신다. 언제가 봄이에요. 우리가 모두 낫는 날이 봄이에요? 그러나 썰매를 타다 보면 빙판 밑으로는 푸른 물이 흐르는 게 보였다. 얼음장 위에서도 종이가 다 탈 때까지 네모 반듯한 불들은 꺼지지 않았다. 아주 추운 밤이면 나는 이불 속에서 해바라기 씨앗처럼 동그랗게 잠을 잤다. 어머니 아주 큰 꽃을 보여드릴까요? 열매를 위해서 이파리 몇 개쯤은 스스로 부숴뜨리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꽃모종요. 보세요 어머니. 제일 긴 밤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우리들의 환한 가계家系를. 봐요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저 동지의 불빛 불빛 불빛.

-「위험한 가계家系·1969」 부분

이 시에서 “아버지, 여전히 말씀도 못 하시고 굳은 혀”는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아버지의 언어장애를 나타낸다. 그런데 아버지의 훼손된 신체를 두고 “우리가 모두 낫는 날이 봄이에요?”라는 물음은 ‘아버지의 훼손→우리의 훼손’으로 확장하는 차원에 있다. 이는 기형도가 ‘우리 모두’를 중풍병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존재 모두를 훼손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훼손은 식물화된 ‘나’가 열매를 위해서 이파리 몇 개를 스스로 부셔뜨리는 법을 배우는 데서도 발견된다. 스스로 신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의도적 훼손을 가리킨다. 중요한 점은 이 훼손이 “열매”를 목표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인은 존재의 복원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훼손의 고통을 선택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빛을 호출하기 위해 기형도가 가장 긴 어둠을 장치해둔다는 것이다. “동지”는 표층적으로 보면 가장 긴 어둠으로서 극에 달한 고통을 내포한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극성한 음기 속에서 양기가 새로 생겨나는 때라는 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희망을 의미한다. 시인이 굳이 동지를 설정한 이유도,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야말로 절실히 빛을 갈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어머니. 제일 긴 밤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우리들의 환한 가계家系를”은 가장 긴 고통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존재를 치유할 수 있음을 빛 상상력에 기대어 드러내는 대목이다. 결국 제일 긴 밤에 잠복한 빛은 고통을 몰아내고

희망을 끌어들이는 힘인 것이다. 그러므로 얼음장 위에서도 네모반듯한 불들은 결코 꺼지지 않아야만 했다. 훼손된 '우리들'을 환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빛의 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빛의 위력은 “바요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저 동지의 불빛 불빛 불빛”으로 표출된다. 만약 기형도가 존재의 고통을 깊이 사유하지 않았다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불빛은 창조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기형도에게 중요했던 것은 빛 상상력으로 고통받는 존재들을 암흑한 현실로부터 건져 올리는 방법, 즉 희망을 쏘아 올리는 방법이었다. 빛 상상력이 연민의 실천과 관계된다는 근거는, 기형도가 극한의 고통을 지렛대로 “저 동지의 불빛 불빛 불빛”을 반복해 호출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비상하는 빛의 위력을 통해 훼손된 존재를 고통에서 구출하려는 시적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 있다. 그는 비상하는 빛을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불빛으로 장치함으로써 훼손된 존재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튿날이 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간유리 같은 밤을 지났다. (중략) 어머니 왜 나는 왼손잡이여요. (중략)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아버지가 끊어뜨린 한 가닥 실정맥이야. 조용히 골동품 속으로 낙하하는 폭풍의 하오. 나는 빨랫줄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아버지의 러닝셔츠가 흙투성이가 되어 어디만큼 날아가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헤아려보았다. 공중에서 확확 솟구치는 수천 개 주삿바늘. 그리고 나서 저녁 무렵 땅거미 한 겹의 무게를 데리고 누이는 포플린 치마 가득 빨기의 푸른 즙액을 물들인 채 절룩거리며 돌아오는 것이다.

아으 칼국수처럼 풀어지는 어둠! 암흑 속에서 하얗게 드러나는 집. 이 불끈거리는 예감은 무엇일까. 나는 형뿔 같은 배를 접으며 이 악물고 언덕에 섰다. 그리하여 풀더미의 칼집 속에 하체를 담그고 자정 가까이 걸어갔을 때 나는 성냥개비 같은 내 오른팔 끝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무서운 섬광을 보았다. 바람이여, 언덕 가득 이 수천 장 손수건을 찢어 날리는 광포한 바람이여. 이제야 나는 어디에서 네가 불어오는지 알 것 같아. 오 그리하여 수염투성이의 바람에 피투성이가 되어 내려오는 언덕에서 보았던 나의 어머니가 왜 그토록 가늘은 유리막대처럼 위태로운 모습이었는지를.

「폭풍의 언덕」 부분

이 시에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우선, 흠투성이가 되어 날아가는 러닝셔츠는 병이 위독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아버지를 묘사한다. 특히 아버지를 흠투성이와 결부하는 것은 병마에 손상된 신체, 즉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상황을 환기하기도 한다. 특히 “왜 나는 왼손잡이여요.”라는 질문은 인간존재의 근원적 불완전성과 유한성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인의 존재론적 사유를 압축해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흠투성이가 아버지→왼손잡이 '나'(아버지가 끊어뜨린 한 가닥 실정맥)→절룩거리는 누이→피투성이 어머니'는 서로 훼손의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훼손된 인간존재의 고통을 일관되게 형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훼손의 고통은 역으로 시인이 인간의 존엄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암흑 속에서 “하얗게” 나타나는 빛은 시인이 왜 “자정”을 통과하려는지를 설명해준다. 자정은 어둠의 정점, 즉 가장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치유의 염원을 동시에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불끈거리는 예감으로 “자정 가까이 걸어”간 것은 고통의 극한이 희망의 시작임을 시인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 고통에 기꺼이 뛰어듬으로써 희망을 찾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어둠이 가장 진할 때라야 비로소 빛이 어둠으로 투입한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시인이 암흑 속에 빛을 끌어들이는 동기가자 자정을 장치하여 극심한 고통으로 희망을 유도하는 계기이다.

기형도는 자연광이 아닌 인위적인 빛으로 빛의 위력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용수철 같은 불빛과 마찬가지로 “성냥개비 같은 내 오른팔 끝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무서운 섬광”은 한순간에 어둠을 추방하는 강렬한 빛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성냥개비가 발화하듯이 강렬히 번쩍이는 순간적인 빛은 무서울 만큼 위력적인 것으로 발휘되고 있다. 섬광은 '왼손잡이'를 '오른팔'로 비약시키는 힘으로서, 훼손된 존재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시적 방법이다. 기형도는 어둠에 웅크린 가련한 존재들을 밝혀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빛의 위력을 원용하는데,

이는 기형도 특유의 빛 상상력이 연민에 근거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자리를 바꾸던 늙은 구름의 말을 배우며
 나는 없어질 듯 없어질 듯 생 속에 섞여들었네
 이따금 나만을 향해 다가오는 고통이 즐거웠지만
 슬픔 또한 정말 경미한 것이었다

(중략)

나는 일찍이 어느 곳에 나를 묻어두고
 이다지 어지러운 이파리로만 날고 있는가
 돌아보면 힘없는 추억들만을
 이곳저곳 숨죽여 세워두었네

(중략)

희망도 절망도 같은 줄기가 띄우는 작은 이파리일 뿐, 그리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어디 있느냐
 식목제植木祭의 캄캄한 밤이여,
 바람 속에 견고한 불의 입상立像이 되어
 싱싱한 줄기로 솟아오를 거냐, 어느 날이나 곧이어 소스라치며
 내 유년의 떨리던, 짧은 냇이여

「식목제植木祭」 부분

이 시에서 “이따금 나만을 향해 다가오는 고통이 즐거웠지만/슬픔 또한 정말 경미한 것이었다”는 반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고통이 즐겁고 슬픔 역시 경미한 것이 사실이라면, 시인은 “즐거웠지만” 대신 “즐거웠고”를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만’은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어미이므로, 슬픔은 경미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것이어야 자연스럽다. 또한 경미하다를 수식하는 “정말”은 청자의 의심을 의식한 발언이라 판단된다. 굳이 ‘거짓 없음’을 강조한 데서 오히려 심각한 슬픔이 환기되는 까닭이다. 고통과 슬픔 간의 문맥을 흐뜨려 발현되는 반어적 효과는 기형도가 시어 선택에서 뉘앙스의 차이를 치밀하게 고려했다는 근거이다. 이처럼 기형도 시에서 반어법은 그 자신의 심각한 고통과 슬픔을 세련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한편, “내 유년의 떨리던, 짧은 낮”은 자기연민을 내포한다. 시인은 유년 시절을 결코 추억으로 반추하지 않는다. 낮을 수식하는 떨리다, 짧다는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암시한다. 존재의 불안, 존재의 한계성은 자기연민의 근원이자 존재론적 고통의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유년의 고통은 치유되어야 할 상처이며 훼손의 흔적인 것이다. 또한 “어지러운 이파리로만 날고 있는” “나”는 파편화된 채 세상을 떠도는, 유리된 자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일찍이 어느 곳에 나를 묻어두”게 만든 유년의 트라우마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삶에 대한 시인의 의지는 캄캄한 밤을 텍스트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밤에 “건고한 불의 입상立像이 되어 싱싱한 줄기로 솟아오를” 것을 주문한다. 시인 말대로라면 ‘살아가기 위해서’ 밤은 비상하는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어둠은 건고하고 싱싱한 빛으로 솟아올라야만 존재를 치유하고 복원할 수 있다. 빛에 대한 집념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건고한 불의 입상立像”에서 증명된다. 건고하게 서 있는 불의 형상은 가공의 빛으로 투사됨으로써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의 위력을 보여준다.

무개화차 위에서 타는 불꽃을
 잠 깬 등 뒤로 얼핏 우리는 빼앗았다.
 아아, 그곳에는
 아직도 남겨져야 할 것이 있었다.
 폐광촌 역사에는
 아직도 쿵쿵 타올라야 할 것이 있었다.
 「폐광촌」 부분

기형도는 폐허에서도 희망의 빛을 쏘아 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시에서도 불꽃은 “쿵쿵 타올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폐광촌은 한때는 왕성한 욕망으로 끓어오르던 장소이지만, 지금은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폐허이다. 아올리,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폐허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본래의 가치를 상실한 훼손된 존재에 불과하다. 이때 어둠에 방치된 폐허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가 빼앗은 것은 바로 “불꽃”이다. ‘쿵쿵’이라는 의성어는 빛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강조하는데, ‘쿵쿵 타올라야 할’ 빛은 암흑한 폐허와 훼손된 존재를 복원하는 힘으로 발휘된다. ‘어둠에 웅크린 가련한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 올릴 것인가’, 그리고 ‘훼손된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몰두했던 기형도는 그 해답을 빛의 비상에서 찾은 것이다.³³⁾

누스바움에 따르면 연민의 시인은 “자신의 시대에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빛이 아니라 어둠을 자각하는 자”³⁴⁾이면서, 고통 속에 기꺼이 뛰어들어 어둠에 지배된 가련한 사람들을 빛의 상상력으로 구원하는 자라고 한다. 이는 연민의 시선으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훼손을 발견하고 시적 상상력의 빛을 통해 고통받는 삶을 바로잡는³⁵⁾ 데, 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기형도 시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공감의 문을 열어 어둠을 바라보고, 텍스트에 빛을 끌어들이어 훼손된 존재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 올리고자 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적 실천은 누스바움이 제시한 연민의 인지적 요소 중 행복주의적 판단에 근거한다. 고통받는 자들의 행복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연민은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윤리적 성취를 포함한다.”³⁶⁾면, 훼손된 존재를 복원하고자 하는 기형도의 노력은 곧 연민 윤리의 시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폐허가 된 이 세계에서 인간의 가능성과 의미를 찾아 탐사하는 것”³⁷⁾이라는 주장은 우리에게 기형도라는 시인이 지금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기형도는 연민의 시선으로 세계 안에서 폐허를 발견하고 인간존재의 고통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어떻게 말해야만 훼손의

33) 이 외에도 존재론적 고통과 빛의 관계를 다룬 시로 「나의 플래쉬 속으로 들어온 개」, 「허수아비」, 「비가-좁은 문」, 「겨울, 우리들의 도시」 등을 들 수 있다.

34)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261면.

35) 위의 책, 250면.

36)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 2 연민』, 613면.

37)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259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깊이 사유하였다.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에 뛰어들으로써 훼손된 존재의 복원을 촉구하였다. 바로 이것이 기형도가 전달하고자 한 희망의 구체적 내용이며, 기형도 시세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나아가 연민 윤리를 실천하는 시적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세계의 특질은 그동안 기형도 시를 가두었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견고한 프레임을 뛰어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연민의 관점에서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고통의 수사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기형도 시가 비극적 세계관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렛대 삼아 희망(존재의 존엄)을 끌어올리고자 했음을 밝혀보았다. 고통의 수사는 기형도 시세계의 특질을 들여다보는 분석 틀이자, 시인의 연민의식을 규명하는 요소이다. 본고는 연민의 고통을 실천철학의 핵심으로 삼는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원용하여,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고통의 수사적 특성을 해명하였다. 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형도 시에서 고통과 희망의 상관관계는 오로지 고통만이 희망을 흔들어 눈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기인한다. 기형도 시에서 고통은 연민의 상황에서 탈주하도록 부추기는 핵심적인 동기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고통은 시인으로 하여금 황폐한 현실 뒤에 희망을 기둥 세우는, 즉 '관찰자의 이중 시선'을 만들어내는 근원으로 나타난다.

둘째, 관찰자의 이중 시선은 시 안에서 '고통/희망'의 알레고리로 구조화되는데, 특히 '안개'와 '입'은 1970년대(산업화)부터 1980년대(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고통/희망의 알레고리를 대표하는 시어이다. '안개'와 '입'은 고통(표층적 알레고리)/희망(심층적 알레고리)을 형상화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폭압/저항, 장막/각성, 노예/해방, 훼손/존엄’ 등으로 의미화된다. 고통/희망의 이중 구조는 기형도 시가 패러독스의 미학을 구축하는 요소이다. 기형도가 어둠으로 써 내려간 고통은 반어적으로 희망을 환기하는 특성을 갖는다. 반어는 기형도가 고통을 희망으로 치환할 때 즐겨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고통/희망의 알레고리는 기형도 특유의 저항 방식으로서, 시세계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셋째, 기형도 시에서 불안증, 강박증, 망상 반응, 공포증 등의 신경증은 존재론적 고통을 자가증식하는 방편이다. 타자의 불행에 공감한다는 것, 즉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시인으로 하여금 신경증을 유발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기형도가 신경증을 시 안에 집요하게 장치하는 진의는 존재의 내부에서 고통을 증폭시키려는 데 있다. 불완전성과 훼손의 고통이 인간존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기꺼이 그 고통을 극대화하여 희망을 처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극한의 고통이야말로 존재의 치유를 유도하는 절실한 시적 도구인 셈이다. 이때 기형도 시에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신경증이 야기하는 정신 증상과 신체 증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동원되고 있다. 존재론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미적 긴장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연민의 고통이 창조한 독특한 시적 영역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기형도의 시적 과제는 존재의 질적 전환, 즉 훼손된 존재들을 복원하는 데 있다. 빛 상상력은 기형도가 이러한 희망을 쏘아 올리는 상징적 도구이다. 특히, 튀어 오르는 빛, 섬광, 솟아오르고 타오르는 빛 등의 비상하는 빛은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발휘되고 되는데, 훼손된 존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위력적인 빛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인은 텍스트에 빛을 호출할 때 ‘동지’, ‘자정’을 배경으로 삼는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의 위력이 발휘되듯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간절한 희망이 촉구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불빛, 무서운 섬광, 쿵쿵 타올라야 할 불의 입상(立像)’은 빛의 위력으로 가공돼 나타난다. 이는 기형도가 빛의 상징에 힘입어 어둠에 웅크린 고통받는 존재들을 암흑한 현실로부터 건져 올리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훼손된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몰두했던 기형도는 그 해답을 빛의 비상에서 찾은 것이다. 역동적인 빛은 존재의 질적 전환을 독특하게 형상화하는데 기여한다.

기형도 시는 고통의 미학으로 연민의 가치를 구현한 가장 모범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기형도는 폐허에 갇힌 인간존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시 안에서 세련되게 운용함으로써 특유의 연민의식을 형상화하였다. 훼손된 존재의 시적 복원은 1970-1980년대 황폐한 현실과 존재론적 한계에 맞서 기형도가 추구한 희망이면서 기형도 시세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의미, 나아가 연민 윤리의 시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모두는 기형도 시가 비극적 세계관이라는 견고한 프레임을 넘어선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주제어 : 기형도, 고통, 연민, 마사 누스바움, 관찰자, 신경증, 빛, 희망, 존재의 복원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기형도, 『기형도 전집』,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엮음, 문학과지성사, 2017.

2. 논문 및 단행본

강연호, 「기형도 시에 나타난 경계(境界)의 세계 인식」, 『한국문예창작』 제17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18, 9-38면.

국원호, 「기형도 시의 비재현적 이미지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김 현, 「영원히 닫힌 빈 방의 체험-한 젊은 시인을 위한 진혼가」,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김수현, 「기형도 시에 나타난 내재적 유토피아 연구 -이콘의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7, 139-170면.

김정화, 「기형도 시의 죽음의 동력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

김행숙, 「기형도가 희망을 말하는 방법」, 『한국문학연구』 제5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275-304면.

김홍진,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시간 양상과 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79-104면.

누스바움, 마사, 『감정의 격동: 1 인정과 욕망』,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5.

_____, 『감정의 격동: 2 연민』,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5.

_____, 『감정의 격동: 3 사랑의 등장』,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5.

_____,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궁리출판사, 2013.

_____, 『협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라기주, 「기형도 시에 나타난 트라우마 양상-‘위험한 기계·1969’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53-83면.

박상찬,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의 상상력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종덕,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공포의 근원과 형상화 양상」, 『어문연구』 제82집, 어문연구학회, 2014, 211-235면.
- 송지선,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bed town)의 로컬리티 연구」, 『국어문학』 제60집, 국어문학회, 2015, 267-288면.
- 오수연, 「유년 체험 시에 나타난 기억 서사의 형상화」, 『어문연구』 제99집, 어문연구학회, 2019, 213-238면.
- 오윤정,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과 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181-204면.
- 원보람, 「기형도 시의 공간 연구」,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지원, 「누스바움의 감정철학으로 본 운동주의 '시적 정의(正義)」, 『어문학』 제143집, 한국어문학회, 2019, 317-347면.
- _____, 「유치환 시에 나타난 '낙인'의 양상과 시적 지향 - 누스바움의 수치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108집, 한국언어문학회, 2019, 213-242면.
- 임세진, 「기형도 시에 나타난 소외 이미지 연구」, 『겨레어문학』 제47호, 겨레어문학회, 2011, 227-257면.
- 장준영, 「李賀와 기형도, 그 죽음의 미학」, 『외국문학연구』 제2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 281-307면.
- 정보규, 「기형도 시의 죽음 의식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효구, 「죽음이 살다 간 자리」, 『작가세계』 제2호, 1989, 376-384면.
- 조성빈, 「기형도 시의 타나토스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한병인, 「기형도 시의 플롯 구조와 리듬의 연관성 연구」, 『비평문학』 제71집, 한국비평문학회, 2019, 199-228면.

【Abstract】

Rhetoric of 'Pain' in Gi Hyung-do's Poetry -Focusing on Martha Nussbaum's Theory of Compassion

Lee, Ji-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rhetoric of 'pain' in the poetry of Gi Hyeong-do. The problem of pain in Gi Hyeong-do's poems comes from compassion, which is a key mechanism for driving his poetic world and serves as an element of securing his unique poetic territory. First, the observer's dual gaze is structured into an allegory of 'pain/hope'. Typically, 'fog' and 'mouth' are allegories of 'social and historical pain/hope of liberation' in a narrow way, but widely of 'real pain/hope of restoration of dignity'. Second, neurosis such as 'anxiety, obsessive compulsion, delusional reaction, phobia' appear as a way of self-replicating existential pain. Extreme pain is a desperate poetic tool that induces healing of a damaged being. At this time, grotesque images are being used to effectively reveal mental and physical symptoms caused by neurosis. Third, light imagination is a symbolic tool for restoring damaged beings. In particular, the flying light dynamically embodies the qualitative transition of existence.

A Gi Hyeong-do's poem is the most exemplary text that embodies the value of compassion through the aesthetics of pain. Gi Hyeong-do deeply sympathized with the pain of human beings trapped in ruins, and managed the pain in a refined manner in his poem, and thus embodied a unique sense of compassion. The poetic restoration of the damaged existence is the hope pursued by Gi Hyeong-do against the dilapidated realities and existential limitations of the

1970s and 1980s, which means the ultimate direction of the world and furthermore has the significance of poetic practice of compassion ethics. All of this can be presented on the basis that Gi Hyeong-do's poetry goes beyond the solid frame of a tragic world view.

【Key words】 : Gi Hyung-do, Pain, Compassion, Martha Nussbaum, Observer, Neuropathy, Light, Hope, Restoration of existence

이지원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28661) 충북 청주시 서원구 창직로50, 410동 1103호(사직동, 푸르지오캐슬 4단지)

전자우편: juliet3107@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